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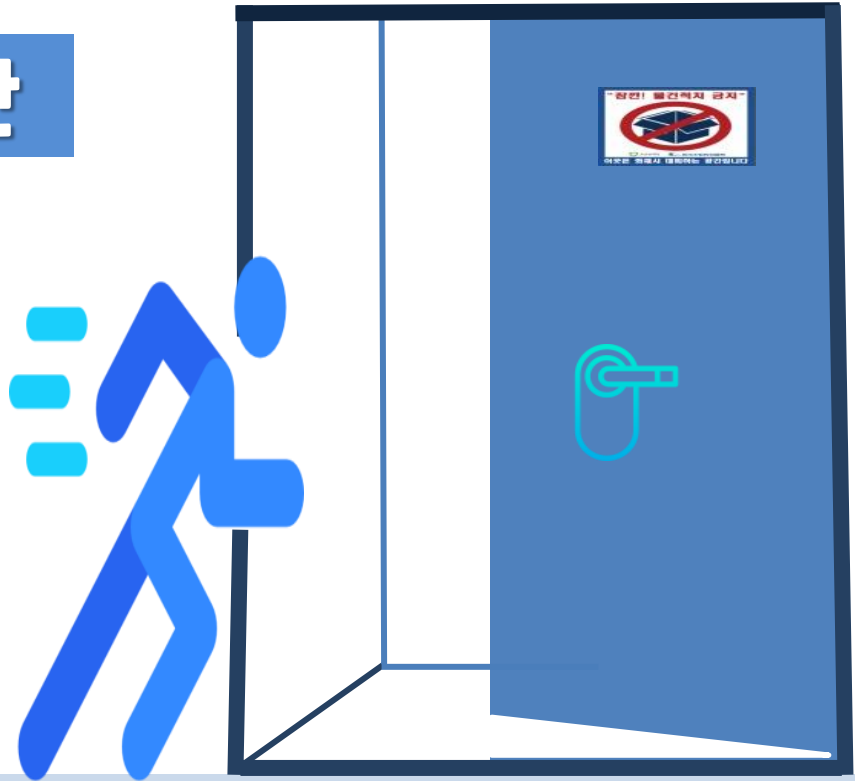
집안에 고립됐을 때 마지막 탈출구 ②

대피공간



**화재가 나면 집밖으로 대피가 최우선이지만
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때
우리 집안에 대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??**

대피공간



- 2005년 이후 공동주택 4층 이상에 의무설치
- 화재를 피해 구조를 요청하고 기다리는 공간
- 경량칸막이, 하향식 피난기구가 있으면 제외

대피공간



- 출입문은 방화문
-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보호
-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요청
- 3층 이상, 10층 이하는 완강기 설치
- 휴대용 조명, 생수, 수건 등의 재난용품 비치

이웃집 대피공간 긴급점검!!



왜 하필
우리집이냐구!!



창고로 쓰기 좋은 위치
대피공간 표지도 없고..
열어 보기가 두렵습니다

역시 물건이 가득합니다.
단 한 사람도
들어가기 힘들겠군요

이웃집 대피공간 긴급처방!!



물건을 모두 치워보니
온 가족이 대피 가능한
공간이 나옵니다.

창문 통해 구조요청!!
완강기를 사용해
탈출도 가능합니다.

“잠깐! 물건적지 금지”



이곳은 화재시 대피하는 공간입니다



대피공간 위치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
온 가족이 알 수 있게 반드시 **표시**를 붙여주세요



너희 집도 이래?

다..당연하지!!

우리집 대피공간

물건은 빼고 **안전**만 채우세요 !!